

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

● 국내 첫 연예인 연구서 이주일은 「빠빠한 광대」 출간-박영수·박성태씨 공동 집필 / 대중스타 낚는 사회병리 파헤쳐...그를 '80년 안개정국 산물'로 분석(스포츠서울 12월 18일 윤홍식 기자)

● '체제의 황포에 침해받는 삶' 최성각의 「모르는 사람들」-삶의 내밀한 영역에 끊임없이 불안을 던져주는 공포의 대상들을 환기(동아일보 12월 19일 문학평론가 이재성)

● 장정일의 「독일에서의 사랑」-간헐 사회가 낳은 억압된 사고 증언(중앙일보 12월 19일 시인 이기원)

● 새로운 사회를 생각하며 송년을 책과 함께 '올해의 책' 1위 「廉想涉전집」-87년 출판 결산...화제의 책 '베스트10' / 「洪大容평전」 「경주南山」 등 눈길 / 신에 시집 강세... 유재용, 조정래 중랑급 소설집 내놔(조선일보 12월 19일 曹良旭기자)

● '저작권법 시행, 도서해금 등 사건 많아-시집 「홀로서기」 50만부나 팔려...이문열·유안진 등 분야별 인기작가 부상(한국일보 12월 19일 金龍善기자)

● 채만식 문학 첫 집대성-전집 10권중 1차분 5권 선보여... 소설·평론 등 280여편을 정리(중앙일보 12월 21일 奇亨度기자)

● 「蔡萬植全集」 사후 37년만에 햇볕-특유의 냉소주의 문단서 외면 / 친필작품까지 포함 280편 수록... 전10권중 5권 완간, 표기법·지문 현대화(한국경제신문 12월 22일 朴聖姬기자)

● 자유화 붓물 뜬 '해금' 대변혁의 해(87문학계 결산)-시, 초대형판 베스트셀러 낚아 / 소설, 「太白山脈」 등 분단 조명 뚜렷 / 김윤식씨의 저술활동 비평계 커다란 수확(경향신문 12월 22일 孫東佑기자)

● 선거 이후 책 잘 팔린다-개표 끝나자서점가 다시 붐벼...10~15% 늘어(동아일보 12월 12일 宋煥彥기자)

● '성숙'의 진통... 저작권법 발표(87 문화계)-금서해제·신규등록 허용 '숨통' / 상반기 증권관련

서적 불티, 하반기 정치서 범람 / 마르크스 「資本論 I 권」 출간 찬반 논란(매일경제신문 11월 22일 文逸기자)

● 「解放前後史의 認識」 제3권 출간-79년 제1권, 85년 2권 발간 이어 / 20~30대 少壯 논문 중심... 좌익운동·민주논쟁 등 다뤄(중앙일보 12월 23일 李根成기자)

● 정보관련 서적 출판러시-고도정보산업 관심고조 반영 / 전문월간지 「정보화사회」 등 10권 나와... 정보와 인간의 공존관계 다룬 책도 선보여(한국경제신문 12월 23일 李成九기자)

● 네번째 평론집 낸 柳宗鎬씨, 「사회역사적 想像力」 출간(조선일보 12월 23일)

● 문고판시리즈 출판 늘고 있다-현재 84종 6300여권 나와... 문학·과학·종교 등 목록도 다양 / 「작품밀도 고양, 독서 생활화에 큰 도움」(한국일보 12월 23일 金龍善기자)

● 「소설 孫子兵法」, 「배짱으로 삼시다」 80년대 베스트셀러(교보문고 베스트10)-81년~87년까지 소설 119종, 비소설 125종 집계 / 저자는 이문열씨 7권 1위, 비소설 1위는 안병욱씨의 5권(경향신문 12월 24일 安健熾기자)

● 광주사태 등 '민주화 자료' 집대성, 기독교교회협 「1980年代 民主化 運動」 출간-5·18 항쟁 일지, 구속·사망·부상자명단 게재... 80~84년까지의 민주화 관련 사건들 소개(중앙일보 12월 24일)

● 在蘇한인작가 단편선집 선보여, 아나톨리 金 작, 「나의 아버지」 등 13편 수록-사할린 한인 생활상 등 소재로... 인간정신의 갈등·긴장 잘 묘사(서울신문 12월 24일 李康文기자)

● 20권짜리 쿤트전집 첫 발간-국내 현대작가 160명 작품 7백여편 담아(서울신문 12월 24일)

● '독자는 작가위주로 책을 산다' 올 베스트셀러 특정작가 「獨食」-소설 이문열, 시 서정운·도중환·이해인, 수필 이희수·유안진, 인문서적 김용옥 / 독자지호 영합, 고도의 상품성 포장도(일간스포츠 12월 25일 安載均기자)

● 첫 '비슷한말 반대말' 사전 나와 / 강릉대 김광해교수 펴내... 총 15만 단어 수록(스포츠서울 12월 25일)

● 출판사 '강남시대' 열린다-공

간확보·문화중심 흐름 맞춰 10여개사 내년 이전을 서둘러 / 소극장 등 갖춘 아파트식 공동 입주도(중앙일보 12월 25일 奇亨度기자)

● 국내 출판계도 카뮈 바람-「결혼·여름」 등 작품·회고담 발간 봄 / 프랑스선 사상·생애 재조명 한창 / 「중간자적 균형감각」의 진면모 드러날듯(조선일보 12월 25일 曹良旭기자)

● 여성백과사전 잇단 출간-10여종 젊은층 겨냥 판권진 치열 / 생활정보 강조... 일본 책 轉載도(조선일보 12월 25일)

● 「類意語-反意語사전」 낸 金光海씨-「우리말 활용에 윤희유 기대」(조선일보 12월 25일 金鴻기기자)

● 쿤트문학 첫정리... 金東里씨 등 160여명 작품 700여편 수록(동아일보 12월 25일)

● 증권가세대 그린 장편소설 내-여류작가 송숙영씨의 「긴꼬리 딱새 날다」-직접 투자하며 주식시장 생리 익혀(일간스포츠 12월 25일)

● 장용 한국인에 原罪의식, 日人이 「鑑魂」의 책 냈다-작년 「遺骸還國」 이어 「민들레 꽃씨가...」 출간(한국일보 12월 26일 南永振기자)

● 사상·분단 등 현실접근 많아(87년 소설)-「太白山脈」 「겨울 골짜기」 등 화제, 「불임시대」선 민족아픔 새 해석 / 정치변혁기 다룬 「일어서는 땅」 등도 주목(한국일보 12월 26일 문학비평가 金治洙)

● 연말연시 선물용책 잘 팔린다-서점마다 별도 코너... 하루 5만명 기록도 / 어린이용 만화에서 명작 시리즈까지(서울신문 12월 28일 安健熾기자)

● '중부인' 세대풍자소설 「긴꼬리 딱새 날다」 펴낸 송숙영씨-증권에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중년여성의 방향 그려(스포츠서울 12월 28일 윤홍식기자)

● '쿤트문학' 결작선집 나와-다락원, 국내작가 160명의 7백여편 담아(경향신문 12월 28일)

● 「小說文學」 전격 폐간 결정-26일 문공부에 1월호 중간 신고, 4개 계열사 노동쟁의가 주원인 / 문단에 큰 파문... 정상화 힘들듯(조선일보 12월 29일)

● 노조 황포에 '울면서 회사문 닫습니다'-월간 「小說文學」 자진 폐간의 배경(서울신문 12월 29일)

● 땅을 등진 사람들의 뿌리 내리기, 梁貴수 소설집 「원미동 사람들」

-애증과 욕망 세계 절묘한 묘사 / 이창동 「燒紙, 이데올로기가 남긴암영 / 박석수 「철조망...」, 한·미관계 부조리 형상화(조선일보 12월 29일 정현기·曹南鉉 대담)

● 在蘇한인작가 아나톨리 金 국내 첫 소개-「사할린의 방랑자들」 동족 모습 그려 / 이희성·김석범·김명식 등 在日작가 작품도 곧 소개(일간스포츠 12월 30일 李滿기기자)

● 중·대형서점 개점·확장 잇달아-100~400평 규모공간 올해 12개소나 생겨... 컴퓨터로 독자 대응 중소기업형 발달음 / 출판사와 직거래... 교보파동이 영세성 탈피 지렛대역(한국경제신문 12월 30일 李成九기자)

● 현대소설·시까지 문학작품 만화화 러시-「張吉山」「감자」「날개」 등 이미 작품화... 평론·각색 등 접촉 활발 / 문학의 대중화, 만화 질 향상에 큰 도움(일간스포츠 12월 30일 陸紅榮기자)

● '87출판 국제저작권 가입... 서적 20% 로열티 부담-납북작가 작품 제외, 판권 431종 풀려 / 두 시집 100만부 판매기록 '최대이변' (스포츠서울 12월 31일 윤홍식기자)

● 과학·역사 등 전집 출간 늘어(올해 어떤 책이 나오나)-한길사 대작 「한국의 역사」 기획 / 월북작가 10인 문학세계 분석서 펴내 / 문학과지성사 계간 「문학과 사회」 창간(매일경제신문 1월 5일 文逸기자)

● 한국 지식인 한해 책 20~100권 독파-「출판저널」 조사(한국경제신문 1월 5일 李成九기자)

● 부적에 관한 연구서 첫 출간-서양화가 金玟基씨 「韓國의 符作」 / 역사·사상적 고증 등 유형별 분류(한국일보 1월 5일 崔成기기자)

● 「出版辭典」 국내 처음 편찬된다-일어 예속서 벗어나 자주성 찾는데 의의 / 91년까지 용어선정·집필매듭 출간 계획(한국경제신문 1월 6일)

● 국내 첫 동굴사진집 발간-石東-씨 10년 작업 열매 / 태고의 신비 가득한 컬러사진 4백여장 담아(조선일보 1월 8일 曹良旭기자)

● 도서발행 신장률 둔화(88출판계)-총선·올림픽 등 대사에 독서열 줄어들듯. 자율화 바람타고 신규출판사 급증 / 저작권조약 발효로 번역도서 감소(서울신문 1월 8일 대한출판협회 사무국장 李斗暎)

● 지식인 65% 하루 2시간 이상 독서(「출판저널」 818명 조사 결과)-60%가 매주 서점 찾고 한달 2~8권 읽어 / 흥미보다 지식 위주 선택(중앙일보 1월 8일 奇亨度기자)

● 부모·자녀 함께 읽을 만한 책 많이 나와-철학교육동화 등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(중앙일보 1월 11일 金敬姬기자)

● '구정가·재고도서' 싸고 침에 대립-비합리적 결제 방식 등 원인...2중가로 질서문란 우려(한국경제신문 1월 13일 李成九기자)

● 북방 한인문학 국내 소개 활발-이산 아픔·이국서의 곳곳한 삶 한국적 정서에 담아 / 월·납북작가 작품 재평가 움직임 이어 신선한 충격(매일경제신문 1월 13일 文逸기자)

● 새로운 '문학계간지시대' 개막-올봄 「실천문학」 등 3개 복간 / 우리 문학과 사회의 의식 반영·수렴 기대(서울신문 1월 14일 任英淑기자)

● 미술관물 무단 복제 강력 규제-문공부, 적발 땀 벌금·출판윤자 중단(중앙일보 1월 14일)

● 부적에 관한 첫 연구서 출간-金玟基씨 「韓國의 符作」...용도·유형별로 분류(서울신문 1월 16일)

● 납북문인 작품 출판 승통 트여-「鄭芝溶-시와 산문」 출간 허용, 金起林 작품도 해금 검토키로(한국일보 1월 19일)

● 철학세계 史劇시나리오에 접목-金谷沃교수, 영화대본 「새춘향단」 창작(서울신문 1월 19일 趙佑石기자)

● 외서 복제업계 「한과」 새 저작권 발효 후 5개 출판사에 첫 과대료 / 무기한 단속...적발 땀 서점 판매코너 폐쇄(한국경제신문 1월 19일 李成九기자)

● 잊혀진 북방정서 되찾는다-북방·연변 무대 「백두산」「푸른섬」 등 출간 / 민족 고유의 삶 굴절없이 표현(중앙일보 1월 19일 奇亨度기자)

● 첫 출판박물관이 생긴다-삼성출판사, 8월 개관 겨냥 부지선정·유물선별 나서 / 인쇄·출판관련 고서·유물 등 전시(한국경제신문 1월 20일 李成九기자)

● 쉬운 철학책 많이 나온다-어려운 용어 피해 알기쉽게 서술...소수의 암호문 벗어나 베스트셀러 오르기도(조선일보 1월 22일 金泰翼기자)